

《과학은 열광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 선정기

과학의 대중적 파급에 대한 열망보단 ‘성찰’을…



‘한국전쟁, 무엇인가?’ ‘수입 문화 원산지 표기, 정확한가?’ ‘애덤 스미스, 국부론 원조 맞나?’ 이달 <출판저널> 서가엔 유효기간이 지난 듯한 물음들로 넘쳐났다. 하긴 물음이라기보단 의심조차 안 했던 사실에 새삼 던져보는 의문이다. 흔히 생뚱맞다싶은 금급증의 끝에 참사실과 얹이 자리하곤 하는 게 지식세상이다. 진보가 별건가. 그런 태도가 바탕될 때 사람과 사물의 이치에 대한 진일보한 깨달음이 있고, 뒷세상을 뒤보다 앞서 보는 마음 눈이 있다. 그처럼 우리 세대와 시대의 번짓수를 되묻는 데서 오는, 가벼운 설렘이 이달 양서를 고르는 일과 함께 했다.

우선 <출판저널> 기자들은 자칫 시류로부터 용도 폐기될 뻔 했던 이치를 규명하느라 애쓴 책에 주목했다. 고르고 고른 끝에 이재호의 《문화의 오역》과 백승영의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박태균의 《한국전쟁》, 오귀환의 《사마천 애덤스미스의 뺨을 치다》, 이충웅의 《과학은 열광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를 읽을만한 책으로 꼽았다. 또 민홍규의 《옥새》와 이우일의 《옥수수빵파랑》, 김원우의 《젊은 천사》, 오규원의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멩이》, 김종은의 《신선한 생선 사나이》, 박태호의 《세계묘지문화기행》도 그들 못지않은 양서로 들었다.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은 관행적 사유에 익숙한 독자, 곧 ‘해석자’의 교조적 권능을 부인하고 있다. 저자인 철학자 백승영은 ‘부정에서 긍정을, 해체에서 창조를, 전승된 것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비판자이자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 이론가 니체’와의 철학적 해후를 권면한다. 책은 ‘니체철학입문’에서 그 과제와 방법론, 새로운 세계해석의 건설이라 할 생기존재론, 관점주의 인식론과 비도덕주의 윤리학, 예술생리학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니체만을 내재적으로 분석하며, 교조적 ‘해석자’ 이길 경계한다. 대신 니체 사유의 철학적 함축과 귀결에 오직 충실하길 고집한다.

왜 새삼 한국전쟁인가? 박태균의 《한국전쟁》은 현대사에서 가장 격렬했던 ‘극적 정치행위’ 한국전쟁의 함의를 되새김질하며, 이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책은 브루스 커밍스와는 또다른 귀납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귀결된 민족 내·외적 모순을 사실에 기초해 조명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뒤집어보기’도 서슴지 않는다. 찬탁과 반탁, 미소공위의 결렬, 분단의 인과를

돌이켜보고, 반전을 거듭한 한국전쟁의 과정을 여러모로 되짚어본다. 《한국전쟁의 기원》 못잖은 스테디셀러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책이다.

《세계묘지문화기행》은 저자 말마따나 “인간의 삶과 죽음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마음의 여행”을 위한 책이다. 하긴 묘지는 죽은 자들만이 아닌, 산 자들의 생각과 모습이 투영된 문화행위다. 책은 유럽과 미주, 아시아, 그리고 우리의 묘지문화를 두루 섭렵하며 또 다른 문명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파리의 박물관급 묘지들과 마드리드의 종합장례시스템, 스웨덴의 친환경적 매장문화, 알프스 산록의 수채화 같은 묘지, 중국의 사회주의식 장묘혁명 등 우리 장묘문화 개선에 유용한 가이드북으로도 손색없는 책이다.

자신만의 과학기술담론을 고민해 온 과학사회학자 이충웅은 “의심이 없으면 과학은 자라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과학은 열광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성찰에서 비롯된 ‘과학 이야기’에 대한 책이다. 저널리즘이 범하기 쉬운 비과학적 ‘과학 대중화’에 대해 매섭게 질문하며, 그것이 ‘옳은 것’이라며 강고하게 감춘 이데올로기를 야멸차게 들춰낸다. 이를 위해 포퓰러한 ‘과학 대중화’의 허구를 신문보도의 파편 속에서 찾아내며, 신문의 과학기사가 노출한 ‘모든 과학’ 대신 ‘어떤 과학’ 이냐를 묻고, 어떤 논리적 결함을 갖 고 어떻게 ‘비과학적’ 인가를 캐묻는다.

책은 1부에서 콩이나 나노기술, 심해탐사 등 소품과도 같은 과학이야기로 그런 검증 시도하는가 하면, 2부에선 암이나 흡연, 우울증 등 의료기사의 허실을 통해 ‘비과학’에 대한 ‘반증’을 제시한다. 3부에선 비교적 ‘사회와 직접 대화가 가능한’ 고속철이나 환경보고서, 굶주림과 기술 등의 소재를 통해 ‘미래’라는 테제를 생각하고, 4부에서 광우병과 인간배아 줄기세포연구 등 대중적 관심사의 두 얼굴을 요모조모 들여다본다.

그런 작업끝에 지은이는 ‘과학의 대중적 파급에 대한 열망과 열광’이란 신화에 앞서, ‘과학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그런 확신이 남다름에 <출판저널> 기자들도 주목하며, 《과학은 열광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를 ‘이달의 책’으로 꼽았다. “‘대중의 과학화’와 같은 획일적 퍼레이드를 위하기보단 일반인의 논리적 과학읽기를 위한 책’이란 저자의 변 또한 그런 선택에 힘을 실어주었다. **최민**

